

다윗 이야기

⑥ 다윗은 하나님보다 앞서 가지 않았어요.



나 레 이 셴 사울왕을 피해 도망치던 다윗에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 가난한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이들과 함께 사울왕을 피해 생활하며 힘든 일도 기쁜 일도 함께 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사람들과 함께 엔게디라는 광야에 숨어 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지내던 다윗을 발견하고는 냅다 사울왕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사울왕에게 다윗의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이 정보를 듣자마자 사울왕은 3천명의 군대를 동원해 다윗이 있다는 엔게디 광야로 와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곳저곳을 샅샅이 뒤지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퐁퐁 숨어 있었기 때문에 사울왕은 다윗을 찾을 수가 없었죠.

사 울 왕 이놈! 이 생쥐 같은 놈! 이놈이 어디에 숨었는지 도무지 찾을 수가 없구나. 분하다... 분... 어.... 배가 왜 이렇게 아프지? 점심에 먹은 밥이 소화가 안 되었나? 음.. 화장실...은 없겠고, 강 몰래 해결해야겠다...

나 레 이 셴 사울왕은 대변을 보기 위해 가까운 곳에 있는 작은 굴속에 들어갔습니다.

사 울 왕 아... 아...

나 레 이 셴 그런데 이런! 사울왕이 들어간 곳은 바로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숨어있는 굴이었습니다.

다윗의사람1 다윗다윗, 큰일 났어요. 지금 이 굴 입구에 사울왕이 들어왔습니다.

다 윳 아니 그게 진짜야? 정말?

다윗의사람2 다윗다윗,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야. 이번 기회에 사울왕을 없애 버리자구. 지금 가서 사울왕이 대변을 보느라 꼼짝달짝도 못할 그때에 처치해버리자구

나 레 이 셴 다윗은 일단 칼을 들고 조용히 사울에게 다가갑니다.

다 윳 살금살금 나 완전 살금살금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까? 아냐..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 왕을 내가 직접 죽이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죽이려하는 왕이지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셔야지. 내가 직접 할 수 없어



나 레 이 선 다윗은 사울왕 죽이기를 그만두고 대신 조용히 왕이 옆에 벗어둔 겹옷자락만 칼로 베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사울왕은 무사히 대변을 보고 굴에서 나왔습니다.

사 울 어힘어힘 시원....허다.

나 레 이 선 그리고는 군대와 함께 멀찍이 이동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다윗이 굴에서 나와 소리를 쳤습니다.

다 윳 내 주, 사울왕이시여! 보소서 내 손에 왕의 옷자락이 보이십니까?

사 울 왕 아니, 저건!

다 윳 왕이시여 나는 왕을 죽이지 않고 겹옷 자락만 베었습니다. 왕께서는 나를 찾아 죽이려하시나 저는 왕에게 잘못된 일이 없습니다. 부디 제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사 울 왕 다윗 이놈.. 나는 너를 괴롭히고 학대하였건만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구나. 네가 나보다 더 선하고 더 의롭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은총을 베푸실게다. 이노옴... 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네... 내 오늘은 그냥 돌아가겠다..얘들아 가자.

나 레 이 선 사울왕은 군대와 함께 돌아갔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안전하게 굴에서 나와 자신들의 요새로 들어갔습니다.